

김정일 시대 권력엘리트 변화*

김갑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노동당,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국방위원회와 인민군대, 주요 공장·기업소 등이다. 그리고 분석시기는 김일성이 생존해 있던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는 2.5세대 또는 3세대로 일정정도 진행되었고 중앙 차원의 변화보다는 지방차원(공장·기업소)의 변화가 많고 정치·군사관료의 변화보다는 경제전문가의 변화가 많았다. 향후 후계구도와 연동되어 세대교체가 더 진행될 것이다. 김정일의 후견세력인 혁명1세대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상징적 차원(혁명선배 존재)에서 후계자의 후견세력으로 혁명2세대(한국전쟁·전후복구세대)가 배치되며 정책집행·실무 그룹엔 '새 세대'(40대 이하)가 중심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 권력엘리트, 세대교체

I. 서론

일반적으로 북한 지도부는 주체사상(선군사상)으로 뭉친 단일화·획일화된 혁명엘리트로 알려져 있다. 즉 하이글레이와 버튼(Higley & Burton)

* 본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의 엘리트 유형(민주적 합의통합형, 분열형, 이념적으로 단합된 혁명형) 중 전형적인 제3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¹⁾ 이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묘사하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자 밑에서 권력과 통치·통제의 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전체주의 엘리트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²⁾

그러나 최근 북한이 초보적 수준이나마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이른바 3실(실리·실적·실력)이 권력엘리트가 지녀야 할 주요 능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 전반적인 세대교체와 맞물리면서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특징이자 기존 엘리트 구조 내에서의 긴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김정일 시대에 들어 김일성 시대의 혁명1세대와 2세대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대신 혁명3세대와 4세대 상당수가 진입하였다. 즉,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는 김정일이 중앙당에 들어간 1960년대에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들어온 인물들, 김일성종합대학의 1960년대 동창생들, 김정일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간부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 등 해외 유학파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 행정, 외교 등에서 전문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운 직업적 경제, 행정, 기술관료 출신이며 대부분이 60~70대 연령층이다. 하지만 최근 40~50대의 혁명3세대들이 급부상하면서 간부층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³⁾

이는 북한 정치체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 John Higley and Michael G. Burton, "The Elite Variable in Democratic Transitions and Breakdow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Feb. 1989), p. 29.

2) Hannah Arendt, "The Totalitarian Leader", in Barbara Kellerman (ed.), *Political Leadership: A Source Book* (Pittsburgh: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6), pp. 212~213.

3)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97.

현재 북한학계는 현안인 북핵문제, 북한체제의 안정성 및 후계문제 등에 매몰되어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북한 엘리트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김용현, 박완신, 최성, 양성철, 김구섭, 현성일 등이 있다.⁴⁾ 그러나 이들 연구는 김정일 시대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김일성 시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엘리트에 대한 기초자료로는 ‘인명록’이 대표적인데, 통일부, 조선일보사, 연합뉴스사, 동아일보사, 서울신문사 등에서 북한 인명록을 편찬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 엘리트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박형중 등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김일성 시대의 엘리트와 김정일 시대의 엘리트를 비교 분석하고 이 바탕 위에서 김정일 시대 당·정·군 엘리트를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세대교체’의 틀에서 분석하지 않고 대체로 서술적이다. 그리고 당정분리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노동당,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국방위원회와 인민군대, 주요 공장·기업소 등이다. 그리고 분석시기는 김일성이 생존해 있던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이다. 다만 2009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의 엘리트는 이때까지를 포함한다.⁵⁾ 본 연구는 권력엘리트 세대교체 여부까지 분석하려

4) 김구섭,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김용현, “사라진 엘리트, 떠오르는 엘리트: 북한 엘리트 연구”, 『통일한국』, 통권 160 (1997); 박완신,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신북한행정론』 (서울: 지구문화사, 2002);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5); 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서울: 한국방송출판, 200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5) 주 참고자료는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9』 (서울: 통일부, 2008);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8』 (서울: 통일부, 2007);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4』 (서울: 통일부, 2003); 통일부, 『북한기관·단체

고 하지만 북한 권력엘리트의 나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체 여부를 중심으로 접근하되 출생연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세대교체 여부까지 살펴본다.

II. 북한의 세대관과 간부선발 원칙

1. 세대관과 세대구분

일반적으로 세대는 사회역사적 세대를 지칭한다. 즉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공유된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지며, 자신이 속한 코호트에 대하여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이다.⁶⁾ 이는 의식, 태도, 행위양식 면에서의 유사성과 안정성의 경향, 세대 구성원간의 동류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세대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에서도 세대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매 세대들이 그들이 살며 투쟁하여 온 역사와 생활경위, 생활체험에서 각기 자기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 세대를 주체사상의 관점

별 인명집 1999』(서울: 통일부, 1998); 통일부, 『2009 북한의 주요인물』(서울: 통일부, 2008); 통일부, 『2008 북한의 주요인물』(서울: 통일부, 2007); 통일부, 『2004 북한의 주요인물』(서울: 통일부, 2003); 통일부, 『1999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집』(서울: 통일부, 1998); 라ヂオプレス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人名簿 1993』; 라ヂオプレス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人名簿 2004』 등이다.

6) 박재홍, 『한국의 세대문제』(과주: 나남, 2005), pp. 85-86.

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전의 세대구분이 사회연령적 구분이었다며 이제는 세대를 “사회와 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해당 역사적 시대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특히는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북한은 이전의 세대이론에 대해 “세대는 거의 동시에 출생하고 동일한 연령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회연령적으로 이해하여 왔다. 또한 세대를 동시대인 즉 같은 역사적 시기에 사는 각이한 연령의 사람들의 집단으로 바라보았다. 대체로 출생의 동시성, 생활기간 등을 위주로 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3세대 1세기론’을 주장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우리 혁명의 1세대, 2세대는 조국을 광복하고 우리의 조국땅 위에 인민대중 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위훈을 세운 세대이며, 혁명의 3세대, 4세대는 그것을 튼튼히 고수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대”⁸⁾라는 해당 역사발전의 시기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세대를 정의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세대구분에서는 단순연령 효과(age effect)보다 동기효과(cohort effect)를 기본으로 하여 역사적 경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역사적 격변을 통해 세대가 구분되며 각 세대별로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생애주기(life stage)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를 기본 준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⁹⁾

7) 리광선, “세대에 대한 주체적 이해”, 『철학연구』, 3호 (2001), p. 32.

8) 위의 글, p. 32.

9) 만하임(K. Mannheim)은 세대를 출생 연도에만 기준을 둔 세대와 공통된 정치적·사회적 경험에 기초를 둔 세대로 구분하였다. 만하임은 출생 연도에 기준

하지만 북한의 세대구분은 모호한 점이 많다. 1세대, 2세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나 3세대, 4세대에 대해서는 이 두 세대를 이전 두 세대와 구별하지만 각각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3세대와 4세대를 이른바 ‘새 세대’로 함께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¹⁰⁾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혁명1세대는 항일혁명투사들을 가리키고 2세대는 한국전쟁 참가자들과 전후 천리마대고조 시기의 참여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 세대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가 수립된 이후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¹¹⁾

-
- 을 둔 세대를 언급하기 위해 ‘위치(location)’라는 용어를, 공통된 정치적·사회적 경험을 기초로 한 세대를 설명하기 위해 ‘실제성(actu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세대의 실제성은 공유의식과 특이한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리청(Li Cheng)은 이러한 만하임의 세대연구에 기반하여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기준으로 정치 엘리트를 5세대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세대의 공통된 경험이 각 세대의 집합적인 정체성과 결집력을 만들었다고 파악하였다. Karl Mannheim,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Paul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2).
- 10) 중국의 권력승계로 인한 정책 변화 및 정치개혁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의 학자들이 세대 논의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리청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정치 엘리트는 1999년을 기준으로 5세대로 나눌 수 있다. 제1세대는 대장정 세대로 마오쩌둥을 핵심으로, 저우언라이, 류샤오치, 린 바오 등이 대표적이다. 제2세대는 항일전쟁 세대로 덩샤오핑을 핵심으로, 후야오방, 자오쯔양, 화궈펑, 차오스 등이 대표적이다. 제3세대는 사회주의 건설기 세대로 장쩌민을 핵심으로, 60대 및 70대 초반의 리펑, 주룽지, 리란칭, 리 루이환 등이 대표적이다. 제4세대는 문화대혁명 세대로 후진타오를 핵심으로, 40대 후반 및 50대로 원자바오, 쟁칭훙, 우방궈, 리창춘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제5세대는 경제 개혁 세대로, 40대 초반의 당 간부에 해당된다. 리청 지음, 강준영 외 옮김, 『차이나스 리더스』 (서울: 예담차이나, 2002).
- 11)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 12. 25),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19~120 ;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음악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0. 2. 25),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9.

여기서 새 세대는 사전적 의미로 ‘청소년, 청년 학생’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이다.¹²⁾ 따라서 새 세대는 청소년기와 소년기에 있는 모든 연령층인데, 조선소년단원(9~13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14~30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연령층에 따른 구분보다는 사회역사적 경험, 즉 시대의 변화와 과업에 따른 구분이 더 의미가 크다. 즉 ‘3세대 1세기론’을 부정한 북한의 세대구분에서 1세대와 2세대가 김일성과 함께 혁명과 건설을 한 세대라면, 새 세대인 3세대와 4세대는 김정일과 혁명과 건설을 함께 한 세대이다. 따라서 3세대와 4세대인 새 세대는 ‘선군혁명세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체험한 세대’로 불린다.¹³⁾

그런데 위 전성호의 글에서 1세대, 2세대와 구분되는 3세대의 규정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인 시기에 자라난 세대들.” 이 단서에 따르면, 3세대가 ‘1970년대에 자라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출생을 1950년 중반까지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은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이전 세대에 비해 물질적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1975년부터 시작된 11년 의무교육의 수혜자로서 정규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또한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하여 당사업을 개시한 시기이다.

그러면 3세대와 4세대는 어떻게 구분한가? 그것의 단서는 1993년 2월 28일 『로동신문』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농촌과 탄광 부문으로 진출하기로 결심한 학생들에게 ‘혁명의 4세대’로 지칭한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4세대는 1970년대 중후반 출생자들이다. 정규교육체계가 완비되어 본격화된 교육수혜를 받았으며 성장기를 고난의 행군시기에 보냈다. 그리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북한

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1146.

13) 김현일, “선군시대의 새 세대”, 『청년문학』, 2호 (2004), pp. 31~32 ; 전성호, “혁명의 3세, 4세”, 『로동신문』, 2006년 2월 28일.

의 세대구분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북한의 세대구분과 특징

세대	활동시기 및 출생년도	지도자	특징
1세대	항일무장투쟁 참가자	김일성	-정규교육 못 받음 -사상성 강함
2세대	한국전쟁, 전후복구 참여자	김일성	-정규교육 못 받음 -사상성 강함
3세대	50년대 중반~70년대 중반 출생자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김정일	-일제폭압과 전쟁 겪지 않음 -정규교육 받기 시작 -김정일 당사업 개시時 출생함 -성장기 물질적 혜택 받음
4세대	7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 (현재 30대 중반 이하)	김정일	-일제폭압과 전쟁 겪지 않음 -정규교육 수혜자 -김정일 후계자 확정 이후 출생함 -성장기 물질적 혜택 받음.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세대구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대를 20년 간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인구재생산주기’를 어머니가 첫 아이를 낳을 때의 나이와 그 딸이 성장하여 첫 아이를 낳은 때까지의 나이 간격이라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이라는 것이다.¹⁴⁾ 이를 근거로 세대를 나누었을 경우 사회연령적 구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만, 1세대 항일빨치산 세대(80~90대), 2세대 6.25참전세대(60~70대), 3세대 전후세대(40~50대), 4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20~30대) 등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¹⁴⁾ 리련희, “인구재생산과 그에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경제연구』, 2호 (2003), p. 45.

2. 간부선발 원칙

북한에서 간부선발의 첫째 표징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이 원칙은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간부선발 배치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간부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간부선발 배치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우리 당의 간부대렬을 김일성주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릴 수 있으며 간부대렬에 이색분자, 우연분자들이 끼여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¹⁶⁾

둘째, 실질적 수행능력이다. 간부선발 배치에서 이력서에서만 의존하는 현상을 없애고 당사자의 실제 사업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치실무적 자질이 높고 조직적 수완이 있는 사람들을 간부로 등용한다는 것이다.¹⁷⁾

셋째, 당의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치하여 간부대렬을 노·장·청 배합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후속세대(새 세대) 양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만큼 간부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합법칙적 현상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계승성을 보장할 수 있게 간부대렬을 로, 중, 청을 배합하여 전망성 있게 꾸리며 그 질적 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¹⁸⁾ 하지만, 북한은 간부 배치사

15) 김일성,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1959.3.23), 『김일성 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02.

16) 김정일,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78. 12.25),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11~212.

17)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1986.1.3),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18.

업에서 세대교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절충적이다. 사상적으로 노쇠하고 지휘능력을 상실한 일꾼들을 깨기 있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일꾼들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¹⁹⁾ 간부 요해사업을 통해 계속 그 자리에 두어야 할 사람, 교체해야 할 사람, 재교육을 시켜야 할 사람 등으로 나누어 간부배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²⁰⁾ 아마 세대교체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간부등용 원칙에서 차별적인 부분도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간부등용에 있어 출신계급이 중요시되었는데 노동계급, 고농·빈농 출신이 우대되었다. 당국가건설에서 이들이 기본 토대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인텔리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간부선발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출신간부를 많이 등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전위부대인 것만큼 마땅히 간부대렬을 노동계급출신으로 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합니다.…… 앞으로 간부대렬을 노동계급출신을 위주로 하여 꾸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학생출신을 간부로 선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간부선발사업에서 기본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²¹⁾

반면, 198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에는 새 세대들을 대담하게 등용하자는 입장으로 선화하였다. 간부 충원에 있어 전문성, 능력, 학력 등이 중

18)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1991.6.1),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15~316.

19)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220.

20)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1978.5.29),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88 ; 김정일,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7.4.9),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408.

21) 김일성, “1971년 사업방향에 대하여”(1970.12.28),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467~468.

요하게 된 것이다. 2006년 1월 김정일은 “이제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사람들의 학력을 중시해야 한다.” “간부는 지식이 있어야 발언권이 서고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 지식이 없는 간부는 발언권이 설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면 경제부문 지도일군들 가운데서 사상적으로 로쇠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담하게 대학을 나온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당일군들 가운데서도 사상적으로 퇴쇠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담하게 능력 있고 패기있는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당일군신분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로쇠하고 수준이 낮으면 정치적으로 예리하지 못하고 투쟁력도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당의 통일과 단결에 해를 주는 현상에 대하여서도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가려볼 줄 모르며 투쟁의 불도 걸지 못합니다. 사상적으로 로쇠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당일군대렬에 두고서는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으며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일 수 없습니다.”²²⁾

Ⅲ. 부문별 엘리트 교체 실태

1. 노동당 엘리트

1) 당 정치국

김일성 생존시인 1993년 당 정치국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치국 정

²²⁾ 김정일,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과업”(1982.9.7), 『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32.

위원은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리종옥, 김영남, 박성철, 서철, 최광,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계응태 등 13명이었고, 후보위원은 김철만, 강희원, 연형묵, 김태현, 최영립, 최태복, 홍성남, 김용순, 조세웅, 홍시학, 리선실 등 11명이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헌통치를 끝내고 제1기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1999년 당 정치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치국 정위원은 김정일, 김영주, 김영남, 박성철,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등 8명으로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새로 충원되고 리종옥과 오진우는 사망하였으며 서윤석, 최광, 서철, 강성산 등이 탈락하였다. 후보위원은 김철만, 양형섭, 연형묵, 최영립, 최태복, 홍성남, 홍석형, 리선실 등 8명으로 홍석형과 양형섭이 새로 등장하고 조세웅은 사망하였으며 홍시학, 김용순, 김태현, 강희원 등은 탈락하였다. 비교적 당 정치국의 변화가 심하였지만 탈락자가 11명, 진입자가 3명으로 충원보다는 탈락의 성격이 강했다.

제2기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인 2003년의 정치국 구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리선실만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켰다. 2007년에도 계응태와 연형묵이 사망한 것만 변동사항이고 나머지는 2003년과 같다. 2007년 12월 현재 당정치국 정위원은 김정일, 김영주, 김영남, 박성철, 전병호, 한성룡 등이고 후보위원은 김철만, 양형섭, 최영립, 최태복, 홍성남, 홍석형 등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혁명1세대에 해당되는 80세 이상들이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 정치국 위원 구성에서 새로 충원은 드물고 사망으로 인한 변화만 있는 것은 그 만큼 당 정치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표 2〉 당 정치국 인물 변화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비고
정위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1942년생(67세)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1920년생(89세)
				오진우	1995년死
				강성산	
				리종옥	1999년死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1928년생(81세)
	박성철	박성철	박성철	박성철	2008.10.28 사망
				서 철	
				최 광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1926년생(83세)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1923년생(86세)
				서운석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2006년死	
후보위원	김철만	김철만	김철만	김철만	1918년생(91세)
	양형섭	양형섭	양형섭		1925년생(84세)
				강희원	
		연형묵	연형묵	연형묵	2005년死
				김태현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1929년생(80세)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1930년생(79세)
	홍성남	홍성남	홍성남	홍성남	1929년생(80세)
				김용순	
				조세웅	1998년死
				홍시학	
	홍석형	홍석형	홍석형		1929년생(80세)
			리선실	리선실	2000년死

2) 당 비서국

2007년 12월 현재 당 비서국 비서는 김종린(근로단체), 한성룡(경제), 최태복(국제), 김기남(선전), 전병호(군수), 김국태(간부) 등 6명인데 최태복(79세)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80대 초중반이다. 이들 모두는 김일성 생존시인 1993년 이래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1기 김정일 정권 출범 후인 1999년의 경우 새로 충원된 사람은 없고 서관히, 황장엽, 윤기복, 박남기 등이 비서에서 제외됐다. 제2기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인 2003년의 구성에서는 계응태가 탈락하고 김용순은 사망했으며 대신 선전선동 담당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정하철(76세)이 등장했다. 그러나 2007년 숙청설이 제기되고 있다.

〈표 3〉 당 비서국 비서 변화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비고
총비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비서				김정일	
	김종린	김종린	김종린	김종린	1924년생(85세)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1923년생(86세)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1930년생(79세)
	김기남	김기남	김기남	김기남	1926년생(83세)
				서관히	1997년 숙청설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1926년생(83세)
	김국태	김국태	김국태	김국태	1924년생(85세)
		정하철			1933년생(76세)
				윤기복	
				박남기	
				황장엽	1997년 망명
			계응태	계응태	2006년死
		김용순	김용순	2003년死	

3)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1980년도 정위원 145명, 후보위원 103명, 총 248명으로 출발하였는데, 이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서 위원수가 증가하여 김일성 사망 전인 1993년에는 정위원 185명, 후보위원 143명, 총 328명이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탈락자만 발생하고 신규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1999년에는 정위원 106명, 후보위원 85명, 총 191명이었고 제2기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2003년에는 정위원 88명, 후보위원 73명, 총 161명이었으며 2007년 말에는 정위원 77명, 후보위원 70명, 총 147명으로 축소되었다.²³⁾

2007년 말 위원수는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의 60% 정도이고 위원수가 많았던 1993년 당시의 45% 정도이다. 그리고 정위원 77명 중 출생년도가 파악된 70명의 평균 나이는 79세이고, 후보위원 70명 중 출생년도가 파악된 29명의 평균 나이는 76세로 고령이다. 대체로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세대인 혁명2세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향후 7차 당대회가 개최되어 중앙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현재 위원을 그대로 유임하더라도 100~150명을 신규 임명해야 한다. 혁명2세대가 신규 충원이 되더라도 그 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가 혁명3세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²³⁾ 현재 알려진 바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마지막 개최가 1993년 12월 제6기 21차 회의이다. 이때까지는 전원회의가 개최되면서 정위원, 후보위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4〉 당 중앙위원회 위원 변동

	1980년	1993년	1999년	2003년	2007년
정위원	145	185	106 10入 89出	88 0入 18出	77 0入 11出
후보위원	103	143	85 17入 75出	73 0入 12出	70 0入 3出
계	248	328	191 17入 154出	161 0入 30出	147 0入 14出
비고			후보→정: 3 정→후보: 7 사망확인: 37 해임·미확인 : 127	사망확인: 30	사망확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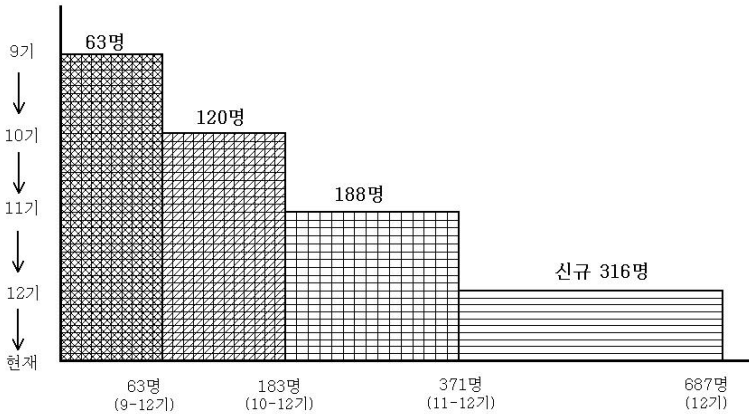
2. 국가기관 엘리트

1)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이후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8년만인 1998년 10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11기를 개최하였고 2009년 4월 12기를 개최하였다. 9기부터 12기까지에 선출된 대의원은 각각 687명이다. 구성원 변화에 있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큰 편이다. 10기 최고인민회의 구성이 8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9기와 비교하여 유임자가 268명(39%)이었고 신규 총원이 419명(61%)이었다. 2003년 11기 최고인민회의의 구성은 10기와 비교하여 유임자가 341명(49.6%), 신규 총원이 346명(50.4%)으로 절반이 바뀌었다. 최근 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유임자가 371명(54%), 신규 총원이 316명(46%)으로 나타났다. 계속 연임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9기부터 12기(1990년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계속 유임된 대의원은 63명이고, 10기부터 12기(1998년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계속 유임된 대의원은 183명이며, 최근 2회 연임한 대의원은 371명이다.

〈표 5〉 최고인민회의의 기별 유임·해임 여부

	9기(1990년)	10기(1998년)	11기(2003년)	12기(2009년)
유임		268명(39%)	341명(49.6%)	371명(54%)
해임		419명(61%)	346명(50.4%)	316명(46%)
총	687명	687명	687명	687명



〈그림 1〉 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계속 유임 및 신규 총원

이처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에서 신규 총원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로 교체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다른 기관의 구성원보다 정치적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대신 통일전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대의원 인물 변화가 심한데 그것은 주로 비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총복들로 꾸려졌으며 풍부한 지식과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일군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된 경험이 있는 일군들,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갈 젊은 일군들로 옹게 배합되어 꾸려졌다.”는 북한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²⁴⁾

한편, 9기부터 12기 사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직업별 분포에서 11기 이전과 12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11기까지는 노동자가 30% 초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협동농장원이 10% 정도이며 나머지가 50% 중후반대이다. 그러나 선군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킨 12기에서는 노동자와 협동농장원 비율이 각 10% 정도이고 ‘군인’ 범주가 추가되었고 그 비중이 17%에 달했다. 성별은 11기까지는 남성 79.9%, 여성 20.1%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12기에는 남성 비율이 84.5%까지 상승하였다. 연령면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5세 이하 1~3%, 36~55세 50% 정도, 56세 이상 50% 정도를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원 구성에 있어 대졸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68.2%, 1998년에는 85%, 2003년에는 91.9%, 2009년에는 94.2%였다. 이와 더불어 교수, 박사,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64.5% → 72.2% → 89.5% → 90.4%로 증가하였다. 이는 대의원의 학력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훈장 수여자 각종 영웅, 명예칭호를 받은 자는 63.8% → 52.3% → 48% → 42.4%로 그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구성의 변화는 위원 개인별 신상변동 측면보다는 최고인민회의가 통일전선적 조직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조직 수장의 교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은 입법기관이므로 법조계 그리고 각 당의 대표, 각 근로단체 대표, 교육·과학계 대표, 소수의 정치인 등으로 되어 있다. 2009년 4월 현재 상임위원 중 정치인으로는 김영남 위원장, 홍석형 함북도당 비서 등이고, 법조인으로는 최영림 서기장이며, 정당인은 김영대 부위원장(사회민

24) 『로동신문』, 2009년 4월 10일.

〈표 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 비교

		9기(1990년)	10기(1998년)	11기(2003년)	12기(2009년)
직업	노동자	37%	31.3%	33.4%	10.9%
	협동농장원	10.4%	9.3%	9.3%	10.1%
	기타	52.6%	59.4%	57.3%	79%(<small>균인16.9%</small>)
정당	조선로동당	87.5%	87.5%		
	조선사회민주당	7.4%	7.6%		
	천도교청우당	3.2%	3.4%		
	기타	1.9%	1.5%		
성	남성	79.9%	79.9%	79.9%	84.4%
	여성	20.1%	20.1%	20.1%	15.6%
연령	35세 이하	2.9%	1.9%	2.2%	1%
	36~55세	56.8%	48.5%	50.1%	48.5%
	56세 이상	40.3%	49.6%	47.7%	50.5%
학력	대졸이상	68.2%	85%	91.9%	94.2%
	전문대 이하	31.8%	15%	6.1%	5.8%
기타	명예칭호	63.8%	52.3%	48%	42.4%
	전문가	64.5%	72.2%	89.5%	90.4%

주당), 강영섭(그리스도교), 류미영(천도교), 심상진(불교) 등이고, 근로단체 대표는 리용철(청년동맹), 김병팔(직업동맹), 로성실(여맹), 강창육(농근맹) 등이다. 변영립(과학원장), 태형철(사회과학원장) 등은 교육·과학계를 대표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차이점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 과학·교육계 인사의 발탁이 증가하였고 대신 대남관계 인사인 양형섭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2기에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이 위원에 피선되었다. 어쨌든 각 조직 수장의 변화에 따라 상임위원회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표 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비교

	2009	2003	1999	1993	출생년도 (나이)	사망 년도	주요약력
위원장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1928년(81세)		
				양형섭	1925년(84세)		
부위원장	김영대	김영대	김영대		1937년(72세)		사회민주당 중앙위 위원장
	양형섭	양형섭	양형섭		1925년(84세)		조평통 부위원장
				려연구			
				백인준	1920년	1999년	
서기장	최영림				1929년(80세)		중앙검찰소장
		김윤혁	김윤혁		1926년	미상	前정무원 부총리 당 중앙위 위원
				리몽호	1930년(79세)		
명예부위 원장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1920년(89세)		
		박성철	박성철		1913년	2008년	
참사		고성순			1926년(83세)		외무성 책임책사
위원	강영섭	강영섭	강영섭		1931년(78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위원장
	류미영	류미영	류미영		1921년(88세)		조선천도교회 중앙지 도위 위원장
	심상진 (08,07)				1944년(65세)		불교도연맹 위원장
		유영선			1941년(68세)		
			박태화		1919년	2005년	
	리용철 (07,12)				1928년(81세)		청년동맹 1비서
		김경호			1958년(51세)		
			리일환				
				최룡해	1948년(61세)		사로청 중앙위 위원장
	김병팔 (07,07)				1934년(65세)		직업총동맹 위원장
		럼순길	럼순길				
				한기창		1993년	
	로성실 (08,10)						여맹 중앙위 위원장
		박순희			1955년(54세)		
		천연옥		1945년(64세)			

			김성애	1924년(85세)		
강창욱 (04.12)						농근맹 중앙위 위원장
	승상섭	승상섭				
			박수동	1923년	1994년	
	리광호	리광호				前과학원장 당중앙위 과학교육부장
변영립	변영립			1929년(80세)		과학원장
태형철	태형철	태형철		1953년(56세)		사회과학원장
홍석형	홍석형 (01.07)			1929년(80세)		함북도당 책임비서
		리철봉		1936년(73세)		강원도당 책임비서
			정하철	1933년(76세)		당중앙위비서 (선전선동)
		리길송		1923년(86세)		중앙검찰소장
			정두환	1912년(97세)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의장
			정준기	1924년(85세)		조평통 부위원장
			정신혁	1920년	2003년	
			리계백			
			류호준			
김양건				1938년(61세)		당 통일전선부장

2) 내각

내각 총리단 구성에 있어 김정일 시대를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일성 시대의 총리단은 거의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이었던 반면, 김정일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는 정치적 고려와 상관없이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탁하고 있다. 김영일 총리, 로두철·오수용 부총리 등은 공개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소장파에 해당된다. 2007년 4월 총리에 선임된 김영일은 1944년생이고 2003년 9월 부총리에서 임명된 로두철 역시 1944년생이며 오수용도 마찬가지이다.

〈표 8〉 내각 인물 변화

	2009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	사망	★	약력
총리	김영일				1944(65세)			육해운상
		박봉주			1939(70세)		☆	
			홍성남		1929(80세)		★	함남도당 책임비서
				강성산	1931(78세)		★	
부총리	곽범기	곽범기	곽범기		1939(70세)			
	로두철	로두철			1944(65세)			
		전승훈			1951(58세)			전 금속기계공업상
	태종수						☆	대안기계기업소 지배인
			조창덕		1938(71세)			조선과학기술총연맹
				김영남	1928(81세)		★	↑ 상임위원장
				최영립	1929(80세)		★	중앙검찰소장
				김달현	1941	2000년	★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성남	1929(80세)		★	
				김환	1929(80세)		★	
				김복신	1925(84세)		★	
				김창주	1922	2003년	★	
				강희원	1920	1994년	★	
				김윤희	1926(83세)		★	
			장철	1926	2003년	★		
명예참사		김복신			1944(65세)		★	전자공업상
					1925(84세)		★	

* ★ 당중앙위 정위원, ☆ 당중앙위 후보위원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여 김정일 시대에 들어 상(장관)급 교체가 빈번한 편이고 더욱이 최근인 2007년 이후 교체된 경우는 37개 부처 중 절반이 넘는 19개 부처이다. 2007년 이후 교체된 상은 외무상, 육해운상, 석탄공업상 등 3개, 2008년 이후 교체된 상은 전력공업상, 금속공업상, 철도상, 무역상, 임업상, 체육지도위원장 등 6개이며, 2009년 이후 교체된 상은 국가계획위원장, 전자공업상, 농업상, 수산상, 도시경영상, 상업상, 수매양정상, 재정상, 조선중앙은행총재, 수도건설상 등 10개이다.

〈표 9〉 상급 인물 변화

부서	취임연월
외무성	박의춘(07.05) ⇐ 백남순(98.09)
인민보안성	주상성(04.07) ⇐ 최용수(03.07) ⇐ 백학림(00.04)
국가계획위원회	로두철(09.04) ⇐ 김광린(03.09) ⇐ 박남기(98.09)
전력공업성	허택(08.12) ⇐ 박남철(06.12)
석탄공업성	김형식(07.01)
채취공업성	강민철(05.11) ⇐ 리광남(03.09) ⇐ 손중호(99.09)
전자공업성	한광복(09.04) ⇐ 오수용(99.12)
금속공업성	김태봉(08.12) ⇐ 김승현(05.06)
기계공업성	조병주(05.07)
건설건재공업성	동정호(05.03) ⇐ 조윤희(98.09)
철도성	전길수(08.10) ⇐ 김용삼(98.09)
육해운성	라동희(07.07) ⇐ 김영일(98.09)
농업성	김창식(09.01) ⇐ 리경식(03.07) ⇐ 김창식(01.02) ⇐ 리하섭(98.09)
화학공업성	리무영(03.09) ⇐ 박봉주(98.09)
경공업성	리주오(01.05) ⇐ 리연수(98.09)
무역성	리룡남(08.03) ⇐ 림경만(04.04) ⇐ 리광근(00.12) ⇐ 강정모(98.09)
임업성	김광영(08.10) ⇐ 석근수(04.06) ⇐ 리상무(98.09)
수산성	박태원(09.04) ⇐ 심기엽(05) ⇐ 리성용(98.09)
도시경영성	황학원(09.04) ⇐ 최종건(99.04)
국토환경보호성	박송남(06.03) ⇐ 장일선(99.04)
국가건설감독성	배달준(98.09)
상업성	김봉철(09.01) ⇐ 리용선(98.09)
수매양정성	문용조(09.01) ⇐ 최남균(01.12) ⇐ 백창룡(98.09)
교육성	김용진(03.09) ⇐ 변영립(99.05)
체신성	류영섭(05.07) ⇐ 리금범(98.09)
문화성	강릉수(06.06) ⇐ 김진성(05.12) ⇐ 최익규(03.09) ⇐ 강릉수(99.09)
재정성	김완수(09.01) ⇐ 문일봉(00.01) ⇐ 림경숙(98.09)
노동성	정영수(05.02) ⇐ 리원일(98.09)
보건성	최창식(06.10) ⇐ 김수학(98.09)
체육지도위원회	박학선(08.02) ⇐ 문제덕(04.03) ⇐ 박명철(99.11)
국가검열성	김익순(98.09)
원유공업성	김희영(미상)
국가과학원	변영립(03.06) ⇐ 리광호(97.06)
조선중앙은행	리광근(09.01) ⇐ 김완수(00.10)
내각사무국	김영호(05.03) ⇐ 정문산(99.09)
중앙통계국	김창수(96.03)
수도건설부	김응관(09.04)

3) 국방위원회

과거에는 국방위원회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1998년에는 김정일, 조명록, 리용무, 김일철, 전병호, 김영춘, 연형묵, 리을설, 백학림, 김철만 등으로 출발하였으나 2003년에는 리을설, 백학림, 김철만 등이 고령(?)으로 탈락하고 대신 제2경제위원장인 백세봉과 최룡수(인민보안상 역임)가 충원되었다. 그러나 2009년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구성 인원이 늘었고 그 범위도 넓어졌다. 2003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는 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3명으로 확대되었다. 올 초 오극렬 당 작전부장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신임 위원은 장성택, 주상성,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 등 5명이고 최룡수는 탈락하였다.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인 주규창은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은 고령인 조명록을 보좌하기 위해서, 인민보안상 주상성은 탈락한 최룡수 대신 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비군인 출신 당 행정부장 장성택과 국가안전보위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석부부장 우동측의 선출이다. 이번 국방위원회 구성의 특징은 사회통제 기구인 당 행정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군 총정치국 등의 책임자가 총망라되었고, 후계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장성택이 선출되었으며, 김정일(67세)과 더불어 혁명2세대로서 그보다 네 살 이상 적은 백세봉, 장성택, 김정각 등이 그리고 장성택, 오극렬, 김영춘 등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이 국방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표 10〉 국방위원회 인물 변화

	2009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년도	사망년도
위원장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1942년(67세)	
제1 부위원장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1930년(79세)	
부위원장				오진우	1917년	1995년
부위원장	리용무(차수)	리용무(차수)	리용무(차수)		1923년(86세)	

	김영춘(차수)				1936년(73세)	
		연형목			1932년	2005년
			김일철(차수)		1933년(76세)	
	오극렬(대장)				1931년(78세)	
				최광	1918년	1997년
위원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1926년(83세)	
					최룡수(상장)	1936년(73세)
	백세봉	백세봉			1946년(63세)	
		김영춘(차수)	김영춘(차수)			
			연형목			
			리을설(원수)	리을설	1921년(88세)	
			백학림(차수)		1918년	2006년
			김철만	김철만	1918년(91세)	
				리하일	1935년(74세)	
				주도일	1922년	1994년
				김광진	1927년	1997년
				김봉률	1917년	1995년
		장성택			1946년(63세)	
		주상성			1933년(76세)	
	우동측					
	주규창			1933년(76세)		
	김정각(대장)			1946년(63세)		

3. 군부 엘리트

1) 인민무력부²⁵⁾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 부장은 1998년 9월 이래 현재까지 유임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부부장에는 김양점(상장), 려춘석(대장), 리태일(상장), 김두남(대장), 정창렬(대장), 박재경(대장), 김상익(상장), 손삼술(중장) 등이 있다. 려춘석과 정창렬은 1998년부터 부부장이었고 나머지

²⁵⁾ 2009년 2월 11일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었고 인민무력부 총참모장에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이 임명되었다. 이 부분은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는 2003년 이후이다. 1998년부터 부부장에 올랐던 리영수(중장)는 2007년에는 보이지 않았다. 중장으로는 손삼술과 김정각이 들어있고 60대는 김양점과 김정각이다. 대변인은 장성익이 1998년부터 맡고 있는데 대좌에서 소장으로 승진하였다.

〈표 11〉 인민무력부 인물 변화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년도	사망년도
부장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1933년(76세)	
				오진우	1917년	1995년
부부장	김양점(상장)	김양점(상장)			1944년(65세)	
	려춘석(대장)	려춘석(대장)	려춘석(중장)		1930년(79세)	
	리태일(상장)	리태일(상장)				
	김두남(대장)	김두남(대장)			1930년(79세)	
	정창렬(대장)	정창렬(대장)	정창렬(대장)	정창렬	1923년(86세)	
	박재경(대장)				1933년(76세)	
	김상익(상장)	김상익(상장)			1943년(66세)	
	손삼술(중장)					
		김정각(대장)	김정각(대장)		1946년(63세)	
		리영수(중장)	리영수(중장)			
			리병옥(대장)		1936년(73세)	
			오룡방(대장)		1925년	2000년
				김봉률	1917년	1995년
				김광진	1927년	1997년
			리병옥	1936년(73세)		
			전문섭	1919년	1998년	
			김영철	1945년(64세)		
대변인	장성익(소장)	장성익(소장)	장성익(대좌)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리을설 원수가 맡고 있다가 최근 참모장에서 승진한 윤정린 상장(11기 최고인민회의 최초 진출)이 대신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정치위원은 최성수 상장에서 김금선 상장으로 대체되었다.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인민무력부 부부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정각(1946년생) 대장이 2007년 이후 맡고 있다. 현 부국장은 현철해 대장, 김기선 대

장(간부국 국장에서 이동), 심상대 상장, 리이준 중장 등이다. 2003년에 보였던 리이준 중장, 박재경 대장, 지영춘 상장, 오경훈 중장, 리병삼 상장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 중 박재경 대장은 무력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위사령부 사령관은 원응희 대장이 맡고 있었는데 2004년 사망함에 따라 김원홍 상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군사재판국 리병일 국장과 군사검찰국 김병남 소장 그리고 후방총국 리덕규 부국장은 1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참모부 총참모장은 2007년 4월 김영춘 차수가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하자 그 자리에 김격식 대장이 들어왔다. 부총참모장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1999년에는 박승원 상장, 안피득 상장, 리봉죽 중장이었다가 2003년 전에 최부일 중장, 한원화 중장, 전진수 상장 등이 추가되었고 2007년 전에 김형용 상장, 리태원 상장 등이 추가되었다. 전차교도지도국장은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전기련 상장에게서 원명균 상장으로 교체되었고, 해군사령관은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김윤심 대장에서 정명도 상장으로 교체되었다. 평양방어사령관 역시 이 시기에 박기서 차수에서 리영호 상장으로 바뀌었다.

〈표 12〉 인민무력부 예하 인물 변화

구분	직위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	사망
호위사령부	사령관	윤정린(상장)					
	참모장		리을설(원수)	리을설(원수)		1921(88세)	
	정치위원	김금선(상장)	윤정린(상장)	윤정린(상장)			
총정치국	국장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1930(79세)	
	제1부국장	김정각(대장)				1946(63세)	
	부국장	현철해(대장)	현철해(대장)	현철해(대장)		1934(75세)	
		김기선(대장)				1943(66세)	
		심상대(상장)					
		리이준(중장)	리이준(중장)	리이준(중장)		1934(75세)	
			박재경(대장)	박재경(대장)		1933(76세)	
	지영춘(상장)						

			오경훈(중장)	오경훈(중장)				
			리병삼(상장)					
간부국	국장		김기선(대장)	김기선(상장)		1943(66세)		
보위사령부	사령관	김원홍(상장)						
		원응희(대장)	원응희(대장)		1939	2004년		
군사재판국	국장	리병일(소장)	리병일(소장)	리병일(소장)				
군사검찰국	국장	김병남(소장)	김병남(소장)	김병남(소장)				
후방총국	부국장	리덕규(소장)	리덕규(소장)	리덕규(소장)		1937(72세)		
		김격식(대장)				1940(69세)		
총참모부	총참모장		김영춘(차수)	김영춘(차수)		1936(63세)		
					최광	1918	1997년	
	부총참모장	박승원(상장)	박승원(상장)	박승원(상장)				
		안피득(상장)	안피득(상장)	안피득(상장)				
		김형용(상장)						
		리봉죽(상장)	리봉죽(중장)	리봉죽(중장)				
		최부일(상장)	최부일(중장)					
		한원화(중장)	한원화(중장)					
		전진수(상장)	전진수(상장)				1930(79세)	
		리태원(상장)					1948(61세)	
						황철산	1927	1987년
						김광진	1927	1997년
						김강환	1931(78세)	
						지기선		2007년
				리홍순				
				리종산	1922(87세)			
				전재선	1940(69세)			
				권중영	1936	2006년		
각군사령부	경보교도지도국장	리태철(상장)	리태철(상장)	리태철(상장)				
	전차교도지도국장	원명균(상장)	원명균(상장)			1934(75세)		
				전기련(상장)				
	포병사령관		정호균(상장)					
	해군사령관	정명도(상장)						2006년
		김윤심(대장)	김윤심(중장)					
	공군사령관	오금철(상장)	오금철(상장)	오금철(상장)				
					김일철	1933(76세)		
평양방어사령관	리영호(상장)							
		박기서(차수)	박기서(상장)			1929(80세)		
평양방어부사령관	김남경(중장)	김남경(중장)	김남경(중장)					

2) 당 중앙군사위원회

2007년 중앙군사위 명단과 1999년 명단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리두익, 오룡방, 백학림이 사망하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가 위원을 그만두었다. 대신 2003년부터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유일한 60대 김두남이 새로 추가되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장 이상이며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리용철만 군사칭호가 없다.

〈표 13〉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단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나이	사망
위원장	김정일(원수)				1942년(67세)	
				김일성	1912년	1994년
위원	리을설(원수)	리을설(원수)	리을설(원수)	리을설	1921년(88세)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조명록	1930년(79세)	
	김영춘(차수)	김영춘(차수)	김영춘(차수)		1936년(73세)	
	김익현(차수)	김익현(차수)	김익현(차수)		1916년(93세)	
	리하일(차수)	리하일(차수)	리하일(차수)		1935년(74세)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김일철	1933년(76세)	
	박기서(차수)	박기서(차수)	박기서(차수)		1929년(80세)	
	김명국(대장)	김명국(대장)	김명국(대장)		1940년(69세)	
	김두남(대장)	김두남(대장)			1930년(79세)	
	리용철	리용철	리용철		1928년(81세)	
		김정일(원수)	김정일(원수)	김정일		
		백학림(차수)	백학림(차수)	백학림	1918년	2006년
			리두익(차수)	리두익	1921년	2002년
			리용무(차수)		1923년(85세)	
			오룡방(대장)	오룡방	1925년	2000년
				오진우	1917년	1995년
				전문섭	1919년	1998년
				오극렬	1931년(77세)	
				김철만	1918년(90세)	
				김강환	1931년(77세)	
			태병렬	1916년	1997년	
			주도일	1922년	1994년	
			최상옥	1929년(79세)		
			리봉원	1925년	1997년	
			최광	1918년	1997년	

3) 군 장성급 변화

2007년 말 현재 원수는 김정일과 리을설 등 2명이다. 그리고 차수는 11명이다. 이 중 10명은 10년 전부터 차수였던 장성들이다. 김룡연(2008년 사망), 국방위 부위원장, 당중앙위원인 김영춘(1936년생), 당민방위부장, 당중앙위 위원인 김익현(1916년생), 국방위원, 당중앙군사위원인 김일철(1933년생), 국방위 부위원장, 당중앙위원인 리용무(1923년생), 인민군 군수동원총국장 출신의 리종산(1922년생), 당중앙위원, 당중앙위 군사부장 리하일(1935년생), 평양방어사령관, 당중앙위원 박기서(1929년생), 제1군단장, 당중앙위 후보위원 전재선(1940년생), 인민군 총정치국장, 국방위 제1부위원장 조명록(1930년생), 그리고 2002년 4월에 차수로 승진한 당중앙위원이며 장성택의 형인 장성우(1933년생), 이들은 군원로들인데 이 중 전재선이 가장 젊은 편이다.

2007년 말 현재 대장은 총 14명이다. 1999년경에도 대장이었던 장성은 9명이다. 당중앙위원, 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승진한 김격식(1940년생), 당중앙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두남(1930년생),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인 김명국(1940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8군단장 김성규(1946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욱(1936년생),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재경(1933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창렬(1923년생), 당중앙위원, 인민보안상 주상성(1933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총국장 현철해(1934년생), 이들 중 김명국, 김성규 등이 젊은 편이다. 그리고 승진자로는 2002년 4월 前해군사령관 김윤심, 당중앙위원,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1946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려춘석(1930년생) 2003년 8월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김기선(1926년생), 2000년 10월 국방위 행정국장 리명수(1937년생) 등 5명이다. 이들 중 나이나 위상으로 볼 때 김정각과 리명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2007년 12월 현재 상장은 총 72명이다. 1999년 이전에 상장에 있었던 장성은 50명이다.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승진자는 18명이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승진자는 5명이다. 2007년 말 현재 중장은 총 231명이다. 1999년에도 중장이었던 장성은 176명이고,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승진한 장성은 27명, 2003년 이후에 승진한 장성은 29명이다.

소장은 1999년에는 884명, 2003년에는 987명, 2007년에는 1073명으로 늘었다.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유임 863명, 신규 124명이었고,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유임 976명, 신규 97명이었다. 대체로 장성으로의 진급은 매년 20~30명으로 추정된다.

4. 공장·기업소 엘리트²⁶⁾

통일부 인명부에 적시되어 있는 기업소 당비서·지배인·기사장 등의 직책수는 총 370개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체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통계상 교체수치는 실제 교체수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 중 1999년부터 2007년 말 현재까지 같은 자리를 한 사람이 차지한 경우는 146개로서 39.5%이고 (빈칸을 포함해) 2003년 또는 2007년에 한번이라도 교체한 경우는 224개로서 60.5%이다. 따라서 유임보다는 교체가 더 많았다(실제로는 50%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비서 자리는 131개인데 계속 유임이 64자리로 48.9%, 지배인 자리는 133개인데 계속 유임이 45자리로 33.8%, 기사장 자리는 106개인데 계속 유임이 37개로 34.9%이다. 당비서의 유임률은 50% 정도 되고 지배인과 기사장의 유임률은 40%를 밑돈다. 즉 이 시기 당비서 직책은 상대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사장과 지배인

²⁶⁾ 통일부 인명부에 기업소 당비서·지배인·기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아 누구냐에 상관없이 교체비율을 검토한다.

직책은 교체가 60%대로 상대적으로 잦았다.

〈표 14〉 기업소 당비서·지배인·기사장 변동 현황

구분	직책수	1999~2007년 계속 유임	교체
당비서	131	64 (48.9%)	67 (51.1%)
지배인	133	45 (33.8%)	88 (66.2%)
기사장	106	37 (34.9%)	69 (65.1%)
총계	370	146 (39.5%)	224 (60.5%)

한편, 교체된 경우만 살펴보면, 당비서 67개 자리의 경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31개로 46.3%,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36개로 53.7%, 2003년과 2007년 연속적으로 교체된 것이 11개로 16.4%이다. 지배인 88개 자리의 경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42개로 47.7%,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46개로 52.3%, 2003년과 2007년 연속적으로 교체된 것이 22개로 25.0%이다. 기사장 69개 자리의 경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25개로 36.2%,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44개로 63.8%, 2003년과 2007년 연속 교체된 것이 11개로 15.9%이다. 총 224개 자리는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교체된 98개로 43.8%,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교체된 것은 126개로 56.2%, 2003년과 2007년 연속 교체된 것은 44개로 19.6%이다. 이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발표되고 제2기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업소 임원의 변동이 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배인의 경우 2003년과 2007년 연속 교체된 것이 25% 달한 것도 지배인 실적에 따른 교체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다.

〈표 15〉 기업소 당비서·지배인·기사장 교체 현황

구분	직책수	1999~2003년 1회 교체	2003~2007년 1회 교체	2003, 2007년 연속교체
당비서	67	31 (46.3%)	36 (53.7%)	11 (16.4%)
지배인	88	42 (47.7%)	46 (52.3%)	22 (25.0%)
기사장	69	25 (36.2%)	44 (63.8%)	11 (15.9%)
총계	224	98 (43.8%)	126 (56.2%)	44 (19.6%)

IV. 결론에 대신하여: 권력엘리트 교체의 정치사회적 효과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는 2.5세대 또는 3세대로 일정정도 진행되었고 중앙차원의 변화보다는 지방차원(공장·기업소)의 변화가 많으며 정치·군사관료의 변화보다는 경제전문가의 변화가 많았다. 그런데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후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과 연동해 향후 세대교체가 더 진행될 것이다. 김정일의 후견세력인 혁명1세대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상징적 차원(혁명선배 존대)에서 후계자의 후견세력으로 혁명2세대(한국전쟁·전후복구세대)가 배치되며 정책집행·실무그룹엔 ‘새 세대’(40대 이하)가 중심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혁명3, 4세대는 일제폭압과 전쟁을 겪지 않고 정규교육을 받았으며 김정일의 당사업 개시와 더불어 출생하거나 성장한 세대이다. 그리고 성장기에 물질적 혜택을 받았지만 또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혁명1, 2세대에 비해 혁명과 건설의 역사가 부족한 반면, 젊음으로 인해 외부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정치사상적으로도 그리 견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로의 교체는 변화 지향적이다. 이것을 북한에 적

용하면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에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4세대 기술관료가 등장하였지만 이들은 정치제도에 회의적이며 정치적 민주주의의 개방성과 평등에 대해 무관심하다. 오히려 그들은 민주주의를 경제기술적 성취의 장애물로 여기기까지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일정정도 진행된 세대교체를 두고 단편적으로 민주화와 개혁·개방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물론 새로 충원된 인물들이 이전에 비해 젊고 학력이 높으며 전문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개혁개방의 확대를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자기가 서 있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른 정향을 보일 수 있다. 즉 엘리트와 일반 주민간의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 일반 주민들의 불평의 공격지점은 중간 간부들이다. 따라서 중간 간부가 인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정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 교양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한다.

결국 북한 사회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방향이 중국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는 통제하되 경제적으로는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간이 장시간 지나면 통제와 혁신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 공간에서는 최대한 실리를 보장하되 정치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는 급변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지체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정치과정은 일방이 타방을 타도하면서 ‘지그재그’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반면, 북한의 정치과정은 중국과는 달리 일방과 타방을 결합시키고 절충시켜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와 인텔리를 절충시키고 농촌과 도시를 절충시키고자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새로운 인물을 충원시키는 이른바 노·장·청 통합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부부장제 역시 이러한 관점

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세대교체는 분명 사회적 변동의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대교체는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그리고 정치·군사부문보다는 행정·경제부문에서 활발하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체제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김정일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세대교체로 인한 체제변동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세대교체 방향이 체제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요구를 제도권 안에 반영함으로써 그것의 정치성을 희석화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명2.5세대, 3세대로의 세대교체는 권력승계에 일단 긍정적이다.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하면 그를 지지하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대교체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권력승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후계자는 새로운 세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승계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복잡해지면 권력승계와 관련해 세대간, 그리고 세대내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권력재편기에 권력갈등과 사람교체가 가장 빈번하다. 권력경쟁에서 승리한 집단은 논공행상을 할 수밖에 없고 패배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세대교체가 새로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접수: 2009년 11월 2일 / 수정: 2009년 11월 16일 / 게재확정: 2009년 11월 19일

【참고문헌】

- 김구섭.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 김용현. “사라진 엘리트, 떠오르는 엘리트: 북한 엘리트 연구”. 『통일한국』, 통권 160 (1997).
- 박완신.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신북한행정론』. 서울: 지구문화사, 2002.
-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5.
- 최 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서울: 한국방송출판, 2002.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9』. 서울: 통일부, 2008.
- .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8』. 서울: 통일부, 2007.
- .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4』. 서울: 통일부, 2003.
- .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1999』. 서울: 통일부, 1998.
- . 『2009 북한의 주요인물』. 서울: 통일부, 2008.
- . 『2008 북한의 주요인물』. 서울: 통일부, 2007.
- . 『2004 북한의 주요인물』. 서울: 통일부, 2003.
- . 『1999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집』. 서울: 통일부, 1998.
- Arendt, Hannah. “The Totalitarian Leader”, in Barbara Kellerman (ed.), *Political Leadership: A Source Book*, Pittsburgh: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6.
- Higley, John and Michael G. Burton. “The Elite Variable in Democratic Transitions and Breakdow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Feb. 1989).
- ラヂオプレス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人名簿 1993』.
- ラヂオプレス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人名簿 2004』.

Abstract

The Change of Power Elites in the Kim Jong-II Era

Kim, Kap-sik(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 of North Korea power elites in the Kim Jong-II era who take up their positions at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Cabinet,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factory. The time span is from early in 1990s to 2007. The features of this change in the last 10 years are as follows. From 2,5 generation to the third one; local changes more than central changes; the changes in economic experts more than in political or military bureaucrats. Larger generational shift will be proceeded in relation of the supreme power succession. The first revolutionary generation who have propped up Kim Jong-II would step down, the second revolutionary generation (the Korean War, post-war restoration generation) who would act as guardian for a successor would fill in the vacancy in the name of 'respect for revolution seniors', and 'new generation' (under forties) would emerge as core elites in charge of policy implementing and practical affairs.

Keywords: North Korea, Power Elite, Generation Change

김갑식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남북관계와 북한변화: 남북관계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Suryong's Direct Rule and Political Regime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 Il』 등이 있다.